

최근 일 년 동안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특성

곽민주(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이희숙(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의 대출과 관련하여 하우스 푸어(house poor), 허니문 푸어(honeymoon poor) 등의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생계형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최근 일 년 동안 부채가 증가한 가구 특히 최근 일 년 동안 증가한 부채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일 년 동안 부채가 증가한 가계의 특성과 아울러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가계의 특성을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년 전에 비하여 가계의 부채가 증가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생계에 부담이 없는 집단(211가구), 약간 부담이 되는 집단(612가구), 매우 부담이 되는 집단(551가구)으로 분류하여 가계 부채의 재정적 부담정도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부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부채의 재정적 부담정도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주거형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연령의 경우에는 40대가, 교육수준에서는 고졸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집단이, 주거의 형태는 월세인 경우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인적자본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소득 잠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높다는 김우영, 김현정(2010)의 결과와 달리 가계부채의 부담은 저학력집단인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력집단은 고학력집단에 비해 미래소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제2금융권이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채 등을 이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취약계층들이 제1금융권에서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출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주거의 형태가 월세인 경우 가계부채의 부담이 큰 것은 월세는 일정한 소득 안에서 다른 비목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정지출 비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가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가계부채의 부담을 호소하는 가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 역시 정부차원에서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월세 상한제를 두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증대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가계부채의 재정적 부담정도에 따른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계부채에 대한 부

담이 큰 집단은 부채부담이 적은 집단에 비해 경상소득, 총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금액은 적은 반면, 금융부채의 금액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가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을 해준 결과로, 정부 혹은 민간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가계부채의 재정적 부담정도에 따른 부채 특성으로 월평균 지급이자 및 상환액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부채 상환기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집단은 적은 집단에 비해 '대출기한은 경과하더라도 00년까지는 갚을 수 있다'와 '상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집단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나 소비자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혹은 민간차원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집단들을 주시하고 부채를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이나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가계부채의 주관적 부담정도에 따른 객관적 부채부담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월평균 지급이자 및 상환액 대비 월평균 경상소득, 총부채 대비 금융자산, 총부채 대비 총자산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으로 부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높은 가계는 객관적으로도 부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김민정, 이희숙(2009). 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와 객관적 경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47(1), 25-43.
- 김우영, 김현정(2010).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16(1), 39-78.
- 배영목(2011). 가계부채 상환부담의 분포와 추이. *한국경제발전학회* 17(1), 87-120.
- 성영애, 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8-219.
- 성영애(1996). 도시 근로자가계의 부채부담추이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6), 25-43.
- 채은석, 성영애(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 부담 관련요인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2.